

김제 용지지역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요청

전북도, 환경부에 적극 요청 · 해양수산부 방문해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 금란도 재개발사업도 건의

전북도가 12일 환경부에 김제 용지 지역을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연일 중앙부처를 방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 지난해 5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에 이뤄진 만큼, 오는 5월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 방문한 해양수산부에서는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재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군산항은 하구언 항만의 특성상 토사매몰 현상이 지속돼 항만 운영을 위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현 군산항 투기장인 금란도는 2022년 말로 예정으로 2023년부터 발생하는 준설도 처리를 위해 제2준설도 투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도는 제2준설도 투기장을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으로 낙점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도 현재 추진 중이다.

도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대규모 유희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항 금란도 재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비로 2022년 국비 5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지역현안 해결형 R&D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도내 27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기(4~6월)와 후기(7~9월)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시한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연못, 최종 유출구)을 채취해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지난해는 도내 2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도민들께서 실내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 골프장 이용 횟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ICT산업 육성방안 의견수렴 · 발전적 운영방안 논의

전북도 ICT발전 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개발 및 자문을 위한 '전라북도 ICT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ICT 관련 기업 및 학계 전문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지역 공공기관 대표 2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도내 ICT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북의 ICT발전 정책개발 및 산업활성화,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2014년 구성된 후 올해 8년째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4대 의장으로 군산대학교 나인호 교수, 4대 운영위원장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최주환 센터장이 선출됐다.

또한, 2021년 전북도 ICT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발전적인 협의의 운영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전북의 ICT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ICT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개발 및 자문을 위한 '전라북도 ICT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응해 기관간 신기술 교류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올해는 도 ICT산업기반팀과 전북테크노파크 내 디지털 융합센터가 신설된 전

북도 ICT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해이다"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ICT발전협의회의 공조를 통해 전북도 ICT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비대면 평가

전북도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인력 보호를 위해 2021년도 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 평가절차를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혁신성장 R&D+사업(50억원 규모)을 포함해 R&D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18억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24억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 선정, 사업의 역량,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여러 평가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 시행했으나, 준비과정에서 혼란과 추진 일정이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올해부터는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비대면 평가의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예외적으로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사업 전담기관 별로 비대면 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예행연습

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비대면 회의 등이 많아지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이 미숙한 기업이 많다.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 능력 등을 제고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기업도 화상 프로그램 사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날 대축제' 비대면으로 열린다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방식 추진 16일까지 사전 접수... 200명 어린이 무작위 추첨 선정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체험관)이 오는 5월 5일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는 오는 16일까지 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 체험관 개관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어린이날 대축제이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드라이브 스루)으로 추진된다.

참가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36개월 이상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를 둔 가족으로 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아 200명의 어린이를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19일 오후에 문자로 송부하며, 추후 행사 안내장 및 체험관 설문지(종이비행기

접기용 색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바라는 바를 휴대전화 촬영 등 영상으로 제출받아 어린이날 체험관 누리집 및 소셜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대된 어린이들로부터 체험관에 있었으면 하는 체험공간과 바라는 바를 적어 종이비행기로 날리는 코스도 준비하고 있다.

체험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신청, 영상 전송을 바란다"고 밝혔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바깥놀이 및 체험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즐거운 어린이날 선물로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용담댐 원수로 공업용수 공급

전북도, 기존 경천·대아저수지 용수에서 변경 추진 만경강 하천 수질개선 ·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 노력

전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를 용담댐 원수로 대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 익산, 원주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에 흘러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비 관계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러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에 생활·공업용수로 135만톤/일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았다.

다만, 2001년부터 20여년 동안 전북은 50만톤/일만 생활용수로 사용해왔을 뿐이다.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

으로 용수 배분과 관련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주 등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러보내 비 관계기에 하천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절한 하천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천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묶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기 위해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